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5. 13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5/6~5/1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예상보다 둔화된 미국 4월 비농업 고용지표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달러 약세에 큰 폭 하락했으나 수급상 결제수요 유입에 낙폭 제한됨
- 중반,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강달러 전환한 가운데 우에다 BOJ 총재의 비둘기적 스탠스로 인한 엔화 약세의 간접적 영향 더해지며 상승 전환
- 후반, 스웨덴의 선제적 금리인하 개시와 연준 당국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 등 미국과 주요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으로 인한 달러 강세에 추가 상승. 이어 주 후반,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에 따른 고용시장 둔화 기대 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 후 마감

달러/원 전망

-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증가 속에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지속 영향을 반영하며 상승 흐름 나타낼 전망
- 다만, 현 시점 연준 인사들간 통화정책 견해가 다소 어긋나고 있는 측면과 주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이 일방향 환율 방향성을 제한할 전망
- 여기에 여전히 1,350원 이상에서의 고점인식 수출 달러 매도 방향의 수급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56.5	1,371.0	1,354.5	1,368.1	+11.6

예상거래범위

1,360원 ~ 1,375원



엔·유로화 동향 (5/6~5/10)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4월 종합 PMI가 예상치 상회하며 유로존 경기 개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소폭 강세 출발. 이어 유로존 3월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전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강달러에 약세 전환
- 중반, 스웨덴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Fed와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가능성 부각된 가운데 달러 강세 지속되며 유로화 약세 지속
- 후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데이터 증가에 따른 고용 둔화 기대감을 반영한 달러인덱스 하락에 유로화는 강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ECB 4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금리인하로의 전환 의지 확인된 측면이 연준 스탠스 와 대비되며 약세 재전환 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63	1.0791	1.0724	1.0771	+0.0008

엔화 동향

- 주초, 일부 연준 위원의 금리인하 지지하는 완화적 발언과 미 고용 데이터 둔화에도 엔화 약세 기조 유지되면서 출발. 이어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언급한 데 따른 달러 강세에 약세 지속
- 중반, 우에다 BOJ 총재의 엔화 약세 관련 정책 대응 가능성 시사 등에도 약 세 압력 심화되며 달러당 155엔선을 재차 상회
- 후반, 미국 실업지표 증가에 의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유입으로 약세폭 일 부 되돌린 모습. 이어 주 후반,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연준 피벗 지연 우려와 그로 인한 미-일 금리차 확대 영향 등에 약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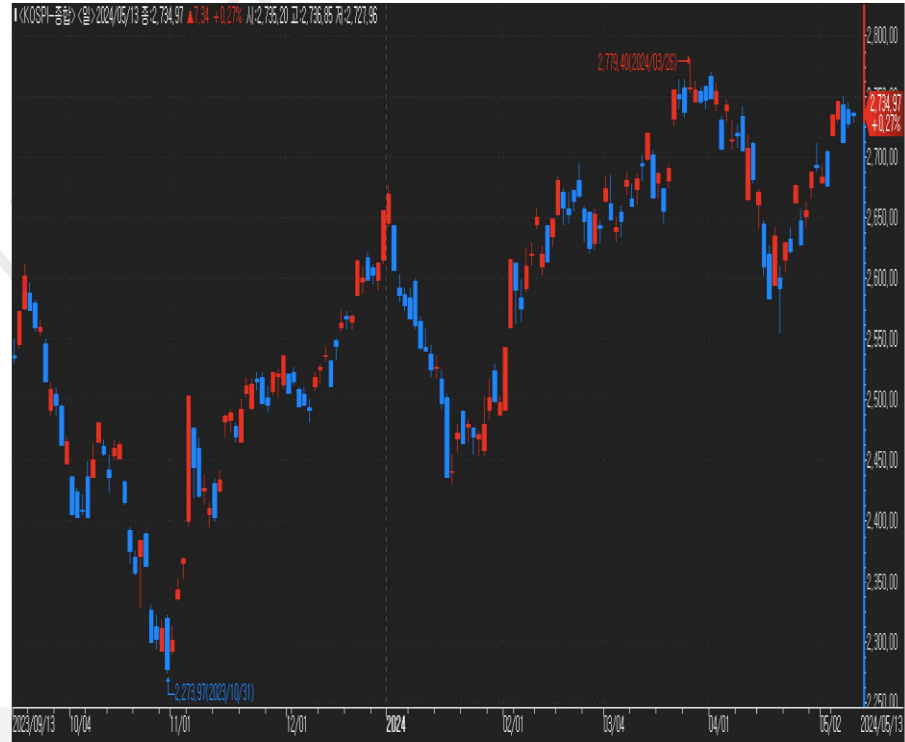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3.0	155.9	152.8	155.8	+2.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5/7~5/1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고용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호주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으로 나온 흐름 반영하며 하락 출발. 중반 들어,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 금리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미 국채 입찰 호조 영향 상위 속에 소폭 하락한 미 금리에 연동하는 양상 시현
- 후반 들어, 3월 경상수지가 69.3억 달러의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채권시장은 다소 안도 분위기 시현. 이후 아시아장에서의 미 국채금리 상승을 추종하며 소폭 오름폭을 확대한 후, 주 후반, 미국 주간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 속에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에 따라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국 4월 비농업고용지표가 이전보다 다소 완화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상승 출발 후 중반, 미 증시의 혼조 양상을 반영하며 동행하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현선물 순매수 등이 하단 지지하는 국면 시현
- 후반 들어, 특이 이벤트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수급의 매도 강화 등으로 큰 폭 하락 흐름 후, 주 후반 미국 주간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 속 전일 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신속 마련 방침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상승 전환 마감